



인도에 K-푸드
싱가포르엔 한우
수출길 넓힌다
L1

metro®

Life

의과대학
지방인재
선발규모 확대
L2



“빛 다루는 ‘유리공예’ 매료… 나만의 희소한 작업 이어갈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유리공예가 곽 동 준 작가

“유리공예의 매력은 빛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리를 활용해 조각 작업을 하는 곽동준 작가는 유리공예의 매력을 이같이 표현했다. 표면의 질감과 색, 함께 사용하는 오브제에 따라 빛을 담아두기도 하고 투과시키기도 한다. 여러 각도로 연마된 면과 접합된 유리의 결을 통과한 빛은 또 다른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곽 작가는 “유리는 시각적으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듯 보이지만 물리적으로는 그 사이의 경계를 나누는 재료”라며 “표면의 연마 정도에 따라 빛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가두어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업 작가로 활동 중인 그는 모교인 남서울대학교 공간조형디자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판유리를 투명한 접착제로 여러 겹 붙여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뒤 돌을 조각하듯 자르고 깎아 형태를 완성하는 ‘접합과 연마’가 그의 작업을 대표하는 기법이다.

◆판유리를 붙이고 깎고 연마하다… ‘접합과 연마’로 찾은 길

곽 작가와 유리의 인연은 대학 진학과 함께 시작했다. 입시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 대학에서 처음 마주한 유리공예는 그에게 전업 작가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이후 국내에서 열린 체코 유리 작가들의 전시를 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접합과 연마’ 기법에 빠져들었다.

그는 이후 일본과 필리핀, 스페인 등 해외 작가들이 같은 기법으로 조형적인 표현을 풀어내는 작품들을 접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데 집중했다.

곽 작가는 “체코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보고 지금의 기법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유리를 갈아내는 기계 앞에 서서 금강



곽동준 유리공예 작가 겸 남서울대학교 공간조형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대학 진학하며 유리와의 인연 시작 전시 접하며 접합과 연마에 빠져 유리 겹겹이 붙이고 깎아내며 작업 기계 대신 손 도구로 유동성 표현

사에 갈려나가는 기물에 집중하고, 한 단 계씩 마감해 완성해 나갔다”며 “다른 생각 없이 한 가지에 몰두한다는 것이 도를 닦는 과정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가 주력하는 기법은 ‘접합과 연마’가운데서도 연마다. 접합이 판유리를 붙여 작품의 바탕이 되는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연마는 이를 원하는 형태로 다듬고 완성하는 과정이다.

곽 작가의 작업은 유리 표면을 조각하

는 인그레이빙과 비교적 가깝지만 제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그는 판재로 생산된 창문 유리를 투명도가 높은 접착제로 붙여 원하는 크기의 덩어리를 만든 뒤 자르고 다듬는다. 깎아내면서 크기를 줄일 수도 있지만 연마한 표면에 다시 유리를 붙여 작품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대리석과 유리를 결합하거나 투명도가 다른 유리를 섞어 빛의 굴절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작업 방식도 변화했다. 초기에는 기계를 이용해 평평한 면을 만드는 데 집중했지만 이후 손에 들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유동적인 표면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곽 작가는 공예에서 기술의 숙련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기법에 관심이 생기든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며 “학생들에게도 공예에만 ‘장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만큼 오랜 숙달과 경험이 쌓여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비틀어진 기둥에서 ‘우연적 익숙함’까지… 변화해온 작품세계

곽 작가의 작품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형태뿐 아니라 그 안에 담는 의미도 달라졌다.

초기에는 자신의 시선과 경험을 바탕으로 비틀어진 기둥을 만들었다. 외부의 힘에 스스로를 변형하며 사회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2009년 선보인 ‘공간 속에 존재하다’가 대표적이다. 이후에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적응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기하학적 형태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작가에게는 즐거운 조형적 시도였지만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반응은 달랐다. 깨질 수 있다는 유리의 특성과 불안정해 보이는 형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관람객들이 있었다. 이때부터 곽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관람자와의 소통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찾은 것이 ‘시각적 단단함’이었다. 유리를 마치 돌처럼 단단한 물질로 보이도록 표현하면서도 일부를 깎고 연마해 광택을 살려 내부의 투명함을 드러냈다. 이후에는 색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접착제를 염색해 추억과 기억 같은 개인적인 의미를 담았고, 거울과 판유리를 함께 붙여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 마주할 미래를 한 작품 안에 표현하기도 했다.

변곡점은 작품에 특정한 이야기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찾아왔다.

곽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표현한다는 작업 과정이 어느 순간 진실이 아닌 거짓을 포장하는 중”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무념, 무상’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무언가를 표현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유리를 붙이고 깎고 다듬었다. 그런데 완성된 작품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형상이 나타났다. 의도하지 않은 반복적인 행위에서 익숙한 이미지를 발견하는 경험은 이후 그의 작업을 관통하는 ‘우연적 익숙함’이라는 주제로 발전했다.

◆정답 대신 관람자의 해석 남겨

이러한 생각은 최근 작품인 ‘Look in (yellow)’과 ‘Look in (Blue)’에서 한층 분명하게 나타난다. 올해 제작한 두 작품은 특정한 형태를 철저히 배제하고 표면을 거친 돌처럼 마무리해 마치 돌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 듯한 모습을 구현했다.

작품명 ‘Look in’은 말 그대로 관람객에게 ‘안을 보라’고 요구한다. 작품 가까이 다가와 안과 밖을 번갈아 바라보고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곽 작가는 “관람자가 작품의 안을 보고

밖을 보면서 무엇을 위한 표현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이런 행위를 통해 관람자는 작품과 소통하고, 궁금증을 가진 채 작가와 대화하며 이해하게 된다. 작품 하나로 작품과 관람자, 작가가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품의 결말을 관람자에게 넘겨주려는 전시장에서 겪은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작가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작품을 만든 뒤 그에 맞는 이름을 붙여 전시해도 관람객들은 때때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렸다. 곽 작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작품에 반드시 하나의 정답을 정해둘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꼭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라며 단정을 지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말을 열어두게 됐다”며 “해석은 관람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나만의 경험 벗어나 관람자와 소통 표현 내려놓고 ‘우연적 익숙함’ 발견 정답 비워두고 해석은 관람자에게

희소한 작업으로 독보적 존재될 것 후배작가 위한 창작공간 마련 ‘꿈’

◆깨지고 다쳐도 다시 유리 앞에… ‘독보적인 존재로 남고 싶어’

유리를 깎는 작업에는 위험도 따른다. 덩어리를 잘라내고 깎다 보면 작게 부러진 조각이 눈 옆을 스치는 일도 있다.

그는 “간혹 유리에 베이거나 다친 상처가 흉터로 남으면 훈장 같은 것이라고 자랑도 한다”면서도 “그런 흔적을 강하게 남겼으면서도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과 마주하면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과감한 결정을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법을 배운 것이라고 위로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그의 작업은 계속된다. 이달 공예가협회전을 시작으로 오는 9월 T.I.D.E 단체전, 10월 아트페어 등이 예정돼 있다.

그가 처음 유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품어온 목표는 하나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곽 작가는 “처음 유리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남들이 하지 않는 희소한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라며 “독보적인 존재로 남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건이 좋아진다면 희소한 작업을 추구하는 후배 작가들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곽동준 작가의 유리공예 작품

- 1 ‘공간 속에 존재하다’
- 2 ‘Rainbow fish’
- 3 ‘Look in (Blue)’



메트로 한줄뉴스



▲“스토킹 연상” 목소리에…스포츠콘텐츠 ‘스토킹’, 7년 만에 채널명 변경
▲이강인, 오늘 서울서 AT마드리드 입단식…‘전례 없는 특급대우’ /사진 뉴시스

▲과거 성 접대 7경기서 한국 축구 무패…FIFA 징계 가능성은
▲‘22경기 무패’ 김상식호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현대컵 4강전

▲‘손서연 23점’ U-17 여자배구, 이탈리아 3-1 꺾고 세계선수권 3연승
▲김주형, PGA 원덤 챔피언십 3R 3위 도약…선두와 한 타 차